

고용청·지자체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

노동계·기업 간담회 잇따라... 노선버스 회사 의견 청취

광주상의·광주경총은 아직도 애로사항·지원대책 소극적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광주일보 4월 17일 14면>제도와 관련, 노동계와 기업들을 상대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면,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제인총연합회 등이 경영상 변화가 예상되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과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의하기는 커녕,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는 데 따른 안일함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여성고용지원 사무실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수·광양·순천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향후 인원 충원과 인건비 지원 등 경영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해당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점검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여수지청 등은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주 52, 여수 15, 광양 6, 순천 3곳 등 76곳에 이르는 만큼 이들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도 '근로시간 단축'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회사 관계자들과 오는 19~20일 간담회를 갖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 5인 이상 37개 노선버스 회

사들의 운전자 총원 계획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무형태 전환 시 버스업체들이 1129명을 충원해야 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광주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상공회의소는 대창운수를 비롯한 시내버스 회사들을 회원사로 두면서도 소극적 입장을 취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2500여개 회원 기업들을 둔 광주상공회의소나 200여개의 회원 기업들을 둔 광주경제인총연합회 등이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대책을 건의하지는 못할망정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차보험 시장 17조 육박

경쟁 심화... 증가율은 줄어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이 1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17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6조8165억원을 기록, 2016년(16조3778억원) 대비 2.7% 늘었다.

2014년(39.1%)이나 2015년(8.8%), 2016년(11.3%)에 비하면 자동차보험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이 3.3%로 2016년 증가율(3.9%)보다 둔화했고,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전체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의 매출액 비중은 19.6%로 전년(19.9%) 대비 0.3%포인트 줄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9%로 전년(83.0%)보다 2.1%포인트 개선됐다.

보험금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사업비율은 18.9%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보험 인터넷 가입 비중은 14.5%를 기록, 2016년(11.6%)보다 2.9%포인트 올랐다. 보험 갱신 시 기존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로 이동하는 비중도 18.1%로 전년(16.7%)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한편 자동차보험 시장도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4개 손해보험 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2013년만 해도 72.9%였지만 지난해에는 80.2%까지 올라왔다. 삼성화재는 28.6%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지만, 현대해상(19.8%)과 DB손보(19.3%), KB손보(12.5%)는 각각 0.6%, 1.1%, 0.1%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영양만점 달걀 많이 드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8일 하나로마트 무안 남악점에서 계란가격 폭락으로 위기에 놓인 산란계 사육농가를 돕기 위한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늘어가는 취포자... 장기백수 17년만에 '최다'

(취업 포기)

1분기 15만명 돌파... 20대 1위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올해 1분기 1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1000명이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5만100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2만4000명(18.8%)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수는 2000년 15만9000명을 기

록한 후 올해가 최근 18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는 1만 900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6000명(51.2%) 증가했으며 1분기 기준으로는 2001년 2만9000명에 달한 후 17년 만에 최다였다.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가운데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최근에 청년층 장기실업자가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구하기 자체를 포기한 이들의 규모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올해 1분기 구직단념자 수는 52만3400명으로 작년 1

분기보다 6800명(1.3%) 늘었다.

1분기 기준 구직단념자는 2014년에 조사기준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많은 것은 고용이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며 향후 더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구직기간을 4주로 설정해 조사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 102만명, 2월 126만 5000명에 이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79.98 (+26.21)
- ↑ 금리 (국고채 3년) 2.20% (+0.02)
- ↓ 코스닥 893.32 (-7.90)
- ↑ 환율 (USD) 1068.70원 (+1.70)



기아차 '뉴스포티지'로 中 대륙 공략

기아차가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신형 스포티지를 출시,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아차 중국 합자법인 동펄웨이다기아(東風悅達起亞)는 17일(현지시각) 중국 시안(西安)의 그린란드 피코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중국 전략형 SUV인 신형 스포티지 출시 행사를 가졌다.

신형 스포티지는 스포티지R의 후속 모델로 '지혜롭게 달린다'는 의미의 기존 모델 현지 판매명 '즈파오'를 계승해 '신형 즈파오'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스포티지는 중국시장에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스포티지 35만 9980대, 스포티지R 53만1556대 등 89만 1536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신형 스포티지의 출시를 통해 SUV 명가임을 확고히하는 한편,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의 고객들을 주 타겟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월 광주·전남 어음 부도율 1.57%

전달보다 1.04%p 상승

광주·전남 어음부도율이 급증했다. 특정한 업체가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한 수백억대 어음에 반영됐다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어음 부도율은 전달(0.53%)보다 무려 1.04%포인트 상승한 1.57%를 기록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평균 어음부도율이 0.20%에 불과한데다, 1년 전인 3월 어음 부도율도 0.22%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만하다.

3월중 광주·전남 부도금액(사업체 기준, 개인 제외)도 405.8억원으로 전달(166.8억원)에 비해 239.0억원 증가했다.

특히 광주 어음부도율은 1월 0.12%에 머물다 2월 1.96%, 3월 3.98%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남의 어음부도율이 0.01%(1월), 0.00%(2월), 0.00%(3월) 등에 그쳤다.

특정 업체가 상거래와 관계없는 과도한 규모의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으로 해당 업체의 어음을 제외하면 3월 광주 어음부도율은 0.37%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택매매 신고기한 60일 → 30일 단축 추진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토교통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8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원래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까지였으나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된 바 있는데, 이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연합뉴스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